

봄에 피어오른 들꽃 이야기

친구야! 안녕! 북서울꿈의숲에 봄과 함께 아름다운 들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너도나도 귀엽게 피어오른 봄의 들꽃과 놀아볼까요? 자! 우리 함께 꽃놀이 랫츠 고!



과연! 어떤 꽃들이 피었을까요?
우리 꽃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꽃 이름을 맞춰 보기로 해요!



- 나는 강남 갔던 제비가 올 때쯤 피어요.
- 나는 보라색, 흰색, 노란색, 분홍색의 옷을 입구요.
- 나는 앓은뱅이 꽃, 오랑캐꽃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① 내 이름은 바로 _____ 입니다!



- 나는 이른 봄에 노랗게 피어나고 때론 하얗게 피어나기도 해요.
- 나는 씨앗들이 하얀 공처럼 웅기종기 모여 있어요.
- 웅기종기 모여 있던 씨앗들은 바람이 불면 춤을 추며 여행을 떠나요.

② 내 이름은 바로 _____ 입니다!



- 나는 하늘 빛깔의 예쁜 옷을 입는 들꽃이에요.
- 나는 너무 작아서 앉아서 보아야 만날 수 있어요.
- 내 이름은 꽃차례(꽃이 달리는 모양)가 '포르르' 말려 있어서 얻은 이름이에요.

③ 내 이름은 바로 _____ 입니다!



- 나는 봄나물의 대표선수로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좋아요.
- 나는 작고 예쁜 하얀색 꽃이 많이 피어요.
- 나는 잎이 땅바닥에 방석처럼 깔려 있어요.

④ 내 이름은 바로 _____ 입니다!



Tip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초성힌트!

① 자 버 기 ② 모 드 르 ③ 기 모 르 ④ L O



**제비꽃이 아직 색동옷을 입지 못했어!
나를 예쁘게 색칠해서 아름답게 꾸며줄래?!**



정답공개~ 꽃 이름을 모두 맞췄나요? 어때요? 꽃의 이야기와 어울리는 이름이죠?
① 제비꽃 ② 민들레 ③ 꽃마리 ④ 냉 이

만든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이춘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정희